

**사무엘하 18.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애통함’ (삼하 18 장 1-33 절)**

**들어가기**

지난 시간 ‘다윗’은 벗이자 충신인 ‘후새’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자신을 맞이해 준 뜻밖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을 정비하여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12000 명의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 ‘압살롬’의 대군을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압살롬’의 군대는 재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치며 크게 패하였고, 이때 함께 도망치던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걸려 매달린 후, ‘요압’의 부하들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을 통해 승전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크게 슬퍼하며 애통해 하였습니다.

**1. 전열을 정비하고 ‘압살롬’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다윗’ (1-5 절)**

1)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군사들을 점검하여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한 뒤, 3 부대로 나누고 이를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가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 ✧ 여기서 주목할 한 사람! -> ‘잇대’ = 그는 블래셋 가드에서 망명한 장군 (+600 명의 군사)
  - ‘다윗’은 급히 예루살렘 성을 도망칠 때, 그에게 자신을 따를 필요가 없으니 자유롭게 떠나서 ‘잇대’와 함께 한 사람들을 지키라고 권유하며 축복하였음.
  - 그러나 ‘잇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할 것이라 맹세하면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 줌!

- ✧ ‘다윗’은 이런 ‘잇대’의 충성을 잊지 않고 귀하게 여겨, 자신의 군사 중 1/3 이라는 큰 숫자를 그에게 맡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동참할 기회(축복)를 줌!

2) 이때 백성들은 친히 전쟁에 출전하겠다고 나서는 ‘다윗’을 말렸습니다!

- ①. 적들은 분명 ‘다윗’의 목숨만을 죽이고자 최선을 다해 쫓을 것.
  - ②. ‘다윗’의 목숨은 자신들 만 명의 목숨보다 중요하기 때문.
- >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마음을 쓰지 말고 성에서 자신들을 도와달라 요청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순교자적인 믿음의 결단과 헌신 위에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도 주를 위해 내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다는 믿음의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 봅시다!

3) ‘다윗’은 군사들에게 자신을 위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 ✧ ‘다윗’의 부탁에서 두 가지를 생각.
  - 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란 확신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
  - ②. 아무리 패역한 아들이라도 아버지로써 아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의 정은 놓지 않았음!
    -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든 ‘압살롬’을 살리고자 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인자와 긍휼로, 자비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어 봅시다.

**2. 전쟁이 시작되자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패하였고, 도망치던 ‘압살롬’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17 절)**

1)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싸운 곳은 에브라임 수풀이었습니다.

- ✧ 우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한 ‘압살롬’은 ‘후새’의 전략대로 수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 ‘다윗’의 군대를 에워쌌을 것!
- ✧ 이때 ‘다윗’의 군대는 저들을 에브라임 수풀로 일부러 유인하여 전투를 벌임.
  - 당시 에브라임 수풀은 수목이 울창하고 좁은 협곡과 낭떨어지 그리고 깊은 늪이 많아서 대군이 전투를 벌이기엔 적합하지 않은 지형임.
- ✧ 결국 ‘압살롬’의 군대는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2 만명**이 죽음을 당하며 패하게 됨!
  - 8 절 주목 ->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 ‘퍼져 싸웠다’의 ‘퍼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푸츠’ = ‘정신없이 도망치고, 흩어지며’ 뜻.
  - 곧 에브라임 숲 속에 3 부대로 매복했던 ‘다윗’의 군사들이 저들을 공격하자 정신 없이 도망치고 흩어지며 숲 속의 여러 협곡과 낭떨어지, 늪에 빠져 수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것!
- ✧ 여기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 ①. 다윗의 범죄 -> 가정의 불화로 (자녀들의 범죄와 죽음) ->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 -> 그에 따른 이스라엘 민족의 큰 상처를 만들
    - > 지도자의 죄/ 가장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나의 삶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경건하게 또 회개하며 사는 성도가 될 것!
  - ②. 에브라임 수풀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 당신의 뜻을 실현해 가시는 분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 참고: 디모데전서 4 장 4 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2) ‘압살롬’은 자신의 군대가 어처구니없이 패하자 급히 노새를 타고 도망하셨습니다.

- ✧ 그런데 도망치던 ‘압살롬’의 머리털이 큰 상수리나무의 가지에 걸리며 매달리게 됨. (9 절)
- ✧ ‘압살롬’의 머리털은 지금껏 그의 자랑거리였고 사람들로 부터 칭찬의 대상이었음.

☆ 성경은 하나님은 악인의 자랑거리를 수치와 멸망의 근거로 삼으시고, 의인의 수치를 영광과 존귀로 변하게 하신다고 가르침!

☆ 참고: 욥기 20 장 5-7 절과 마태복음 5 장 11-12 절.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달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욥 20:5-7)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 5:11-12)

그러므로 악인이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반면 의인이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된다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언제나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3)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보고를 들은 ‘요압’은 왜 당장 그를 죽이지 않았냐고 책망하면서, 만약 그를 죽였다면, 자신이 은 열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 하나!

☆ ‘압살롬’의 반역이 **외적인 반역**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요압’의 모습은 ‘다윗’의 간절한 부탁과 명령을 조금도 생각지 않는 심각한 **내적 반역**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 이에 대한 한 신학자의 코멘트;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요압’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반대하고 반대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심각한 반역이란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 참고로 이런 내적 반역을 멈추지 않던 ‘요압’은 결국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가담하며 악인의 길을 걷게 됨.(열왕기상 1 장 7 절)

4) 그럼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다는 책망을 들은 군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 ①.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은 1000 개를 받는다 해도 ‘압살롬’의 몸에 손대지 않았을 것!
- ②. 만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요압’이 자신을 죄인으로 몰았을 것!

여기서 우리는 이 이름 모를 군사의 고백을 보면서 다시금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또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 때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5) 그러나 ‘요압’은 이런 충성스런 신하의 말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결국 자신의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그럼 왜 ‘요압’은 ‘다윗’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이려 했을까?

6) ‘압살롬’의 시체는 에브라임 수풀 큰 구덩이에 던져져 큰 돌무더기로 쌓이고 말았습니다.

☆ 학자들: 이는 ‘패역한 자녀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율법을 성취시킨 것

☆ 참고: 신명기 21 장 18-21 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 3. 그런데 ‘압살롬’은 살아생전 자신을 위해 한 기념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18 절)

#### ▪ 18 절 주목: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은 이 비석은 **자기 이름을 기념하고 후세에 남기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압살롬’처럼 수많은 왕들과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기념하려고 기념비를 세우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궁전을 지었으나 진정한 명예는 그들이 세운 비석이 아닌 백성을 아끼고 섬긴 진실된 삶의 업적을 통해 나타나고 전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도 얼마나 큰 교회를 짓고, 대단한 사역을 했는지? 그것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하루의 삶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는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 그 믿음의 삶으로 증거되고 남겨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됩시다.

### 4.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친히 승전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19-23 절)

1) 왜냐하면 이것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로 기쁜 소식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아히마아스’의 마음에 진실로 ‘다윗’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

2) 그러나 ‘요압’은 ‘아히마아스’의 요청을 극구 말리며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냈습니다.

☆ 그 이유는 만약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그가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

☆ 여기서 다시금 ‘압살롬’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다윗’의 맘을 상하게 하는 일인지 ‘요압’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을 확인!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끝까지 자신을 보내달라 요청하여 결국 ‘다윗’에게 달려감!

- ✧ 그럼 ‘아히마아스’는 ‘요압’이 자신을 말린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 ✧ 분명히 알았을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승리의 기쁨을 빨리 ‘다윗’과 백성들에게 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귀하다고 판단한 것!

4) ‘아히마아스’는 자신보다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보다도 더 열심으로 달려 먼저 도착했습니다!

- ✧ 23 절 주목: ‘…,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달음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가니라’
  - 일부러 좋은 길이 아닌 불편하고 힘든 들판을 가로질러 구스 사람을 앞질렀다는 것!
  - 그만큼 좋은 소식을 전해 주고자 열심을 내었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우리도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어 봅시다.

### 5. ‘다윗’은 문 앞에 앉아 승전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33 절)

1) 한 사람이 달려 온다는 파수꾼의 보고에 ‘다윗’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 ✧ 구스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 보고했을 때에도 똑같은 고백을 함!
  - 충분히 패전 소식을 가지고 올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긍정적인 소식이라 확신한 것.
- ✧ 이는 ‘다윗’이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며 기다렸다는 증거!

2) 특별히 파수꾼이 달려오는 이가 ‘아히마아스’로 보인다고 보고했을 때, ‘다윗’의 반응을 주목!

- ✧ 27 절, ‘…,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듯, 감사의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하고,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한다는 사실을 묵상하며, 항상 밝고 감사한 말, 믿음의 선한 말만 하는 성도들이 되어 봅시다!

3) ‘다윗’은 두 전령을 통해 승전소식을 듣자, 동일하게 압살롬이 무사한지부터 물었습니다.

- ✧ 다시금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재확인하게 됨.
- ✧ 이때 ‘아히마아스’는 자신은 정확한 사항에 대해 모른다고 답함!
  - 이는 ‘다윗’이 큰 충격을 받아 심신이 미약해지고 흔들릴까 걱정하여 ‘압살롬’의 소식이 조금이라도 천천히 전해지길 바란 ‘아히마아스’의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까!

▪ 특별히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전한 소식을 비교해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음!

①. 26 절의 ‘아히마아스’의 자세: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②. 31 절의 구스 사람의 자세: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새삼 생각하게 되는 것 하나는 좋은 소식이라도 상황에 따라 슬픈 소식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소식(복음) 이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의 상황과 상태를 지혜롭게 살피며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4) 구스 사람을 통해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자신이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크게 애통해 하였습니다. (33 절)

☆ 참고: 몇몇 학자들의 코멘트

- 압살롬의 죽음이 결국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임이었다는 생각에 ‘대신 죽기를 바라며’ 더 크게 애통해 했을 것!
-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군사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다윗’을 볼 때 그도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는다는 것.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